

영어교육, 61권 2호 2006년 여름

영어교육(*English Teaching*) 학술지 논문의 인용문헌 분석*

김 경 석
(경기대학교)

Kim, Kyung Suk. (2006). An analysis of references in the articles in *English Teaching*. *English Teaching*, 61(2), 3-23.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broad overview of the references included in the articles of the journal, *English Teaching*, published from 1985 to 2004. The 20-year period is divided into three spans: 1985-1994, 1995-1999, and 2000-2004.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references in the three spans are as follows: 1) the number of references per article has increased, journal articles being most frequently referred to, followed by books and edited books; 2) the authors of the articles heavily relied upon foreign references as compared to Korean sources; 3) all the top 15 researchers referred to in each span are foreign scholars and the top Korean researchers are cited far less than the foreign scholars; 4) in line with the previous result, the most referred to research products are also by foreign researchers; 5) all through the years, almost all the top-ranked foreign research products are concerned with language education whereas the majority of the highly-cited Korean references are related to educational policies.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 collection guide for libraries in order to meet the needs for references of researchers. And in the absence of an objective standard for evaluating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researchers and their products, the frequencies of citation for them can work as indicators of their contribution to the field of English education.

I. 서론

정보를 새로이 창출하는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정보이용자인 연구자들은 문헌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문헌을 포함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학술지 등을 통해 발표하고 그 연구결과를 평가 받게 된다. 이처럼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물은 끊임없는 평가의 대상으로 학위논문의 심사, 인용문헌 분석(citation analysis), 평가 논문(review article)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역사에 의한 평가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있다(이가중, 1996). 이들 중에서 인용문헌의 분석은 어떤 자료들이 얼마나 관련 분야의 연

* 본 연구는 2004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구활동에 기여하고, 다른 연구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보여주며,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때 자신의 연구 주제와 유사한 논문을 검색한 후 이들에게서 인용된 주요 인용문헌을 조사하여 사전지식을 구한다. 그 실례로, 사회과학분야 교수들의 자료검색방법의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하였던 박준식, 박일종과 신상현(1999)에 따르면 유사논문의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선호도가 높으며 뒤를 이어 관련학문의 초록지, 색인지, 검색어를 사용하는 온라인 열람목록, Internet의 검색엔진, 그리고 CD-ROM 자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용문헌 분석의 여러 기법 중에서 Gross와 Gross(1927)가 처음 시도하였던 단순계수방법은 각 인용문헌의 인용빈도에 대한 통계를 구하여 어떤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을 받았는지를 밝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인용문헌분석의 장점은 인용하는 저자들의 문헌 이용행태와 특성을 알 수 있고, 연구활동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과정을 유추할 수 있고, 정보수요를 예측하여 도서관 장서개발에 활용가능하며, 연구방향의 변화를 밝힐 수 있고 인용분석 결과를 연구업적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이혜영, 1994). 또한, 공통으로 인용된 문헌을 통해 최신 연구 주제를 파악하고 새로운 연구에 대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한편, 인용분석의 한계점으로는 연구에 이용된 모든 정보가 인용된 문헌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으며, 출판물의 명성과 특성이 인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국내의 인용분석 연구는 그간 여러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는데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그런데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분석문헌수와 인용문헌수가 적어 연구 결과를 분석 대상 학회지들에 포괄적으로 적용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여러 학문분야에서 인용문헌을 분석하는 연구가 행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았다.

표 1
인용분석 연구

연구자	발표년도	학문분야	연구대상 주요문헌	분석대상 문헌수	분석한 인용문헌
박성미	1988	통계학	‘통계학연구’ 75-86년분	137편	1171건
유재욱	1993	도서관학	‘도서관학’ 70-90년분 128편 중	37편	1083건
이혜영	1994	전기전자공학	국내: 정기간행물기사색인 86-88년분 국외: INSPEC DB 86-89년분	국내 235편 국외 189편	3414건
정진식	1994	사회과학	경제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등 3개 분야 국내학회지 93년분	131편	4188건
최상기	1996	기계공학	대학기계학회논문집 등 93-94년분 일본기계학회논문집 등 93-94년분	국내 258편 일본 316편	7515건
이선미	1997	심리학	‘한국심리학회지’ 89-94년분	480편	11647건
이춘실	2004	의학	2000년도 대한의학학술지편집협의회에 등재된 학술지 69종	7856편	170254건

정부차원에서의 인용색인 연구와 관련하여, 2005년 8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당 재단에 등록된 등재(후보)학술지 등을 대상으로 국내 학술지 인용색인 정보(Korea Citation Index: KCI)를 일차적으로 구축하였는데, 각 학술지별로 2002-2004년까지 3년 동안 발행된 논문들의 타 논문에서의 인용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영어교육’ 학술지의 경우, KCI는 2002년 57권 1호부터 2004년 59권 4호까지 수록된 189편의 논문이 자체 학술지 또는 다른 14개의 영어교육관련 학회지에서 2002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인용된 현황 [개별 논문의 피인용 횟수 그리고 영어교육의 논문을 인용한 학술지(citing journal)들의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¹ 색인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189편의 논문이 ‘영어교육’에서 21건 인용된 것을 포함하여 15개 학술지에서 총 57건 인용되었다. 이러한 정보를 제외하고, KCI는 어떤 인용문헌 들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며, 어떤 연구자가 영어교육계에 기여를 많이 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인용행태와 영향을 끼친 논문과 연구자의 변화추이 등을 살펴볼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 분야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영어교육’ 학술지의 1985년부터 2004년까지 20년 동안 발행된 총 60호에 실린 논문들(721편)에서 인용된 문헌들을 단순계수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어교육 분야 연구자들의 문헌 이용행태를 살펴보고, 그들의 연구활동에 영향을 미친 주요 연구자와 자료를 조사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주체의 변화추이 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1985-2004년까지 20년 동안 발행된 논문을 3주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체 20년을 5년을 단위로 하여 4주기로 분석하려고 했으나, 1985년부터 1994년까지는 현재와 달리 연 2호 밖에 발행하지 않아(1985년에 1호 그리고 1994년 3 호 발행을 제외) 전체 논문의 수가 1995년(최초로 연 4호 발행) 이후 발행된 호의 논문 수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발행호수가 일치한 기간을 바탕으로 하여 세 주기(1985년-1994년, 1994년-1999년, 그리고 2000년-2004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위 세 기간 동안에는 각기 모두 20호의 학회지가 발행되었다. 각 주기별 발행된 총 논문의 수와 이들의 작성 언어를 살펴보면 표 2과 같다.

¹ ‘영어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학술지는 ‘담화와 인지’, ‘사회언어학’, ‘어학연구’, ‘언어과학연구’, ‘영미어문학’, ‘영어교육연구’, ‘영어어문교육’, ‘영어학’, ‘영어학연구’, ‘응용언어학’, ‘초등영어교육’, ‘한국교원교육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등이다.

표 2
각 주기별 발행된 논문의 수와 언어별 분류

	1985-1994	1995-1999	2000-2004	총계
영어 논문	91	135	226	452
한글 논문	110	90	69	269
총 논문수	201	225	295	721

총 721편 논문의 인용문헌에 제시된 주요 저자나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살피기 위해 Monocon Pro 2.1을 활용하였는데 1985-2004년까지 발행된 논문에 수록된 인용문헌을 word.txt 파일로 입력한 후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인용 분석에 필요한 분야만을 선택하여 검색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예를 들어, 주요 저자의 피인용 횟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용된 모든 저자들의 빈도수를 검색한 후 상위 저자들을 개별적으로 탐색하였다. 왜냐하면, 전체 저자들의 빈도수 검색은 데이터에서 특정 저자의 이름에 대한 총 등장 횟수만을 보여 주는데 그 횟수가 실질적인 피인용 횟수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해당 저자의 이름과 그 출처를 세부적으로 검색함으로써, 피인용 문헌을 저자가 직접 저술한 것인지, 편집된 자료의 저자(an editor of an edited book)로서 인용되는 것인지, 또는 피인용 문헌의 제목에서 저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예, Young, D. J. (1992). Language anxiety from the foreign language specialist's perspective: Interviews with Krashen, Omaggio, Terrel, and Rardin. *Foreign Language Annals*, 25, 157-172.) 인지를 조사하여 후자의 두 경우는 해당 저자의 총 피인용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 출판형태

인용문헌을 출판형태별로, 저널의 논문, 책, 편집된 책에 실린 논문(장), 잡지/신문기사, 연구 보고서, 학회 발표 논문, 학위 논문, 인터넷자료로 분류하였다. 이때 서지 사항이 불확실하거나 공식으로 발표되지 않은 글을 포함한 그 외의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분류의 기준은 학회지의 투고요령에 주어진 것을 참고로 하였다.

표 3에 주어진 각 주기별 인용문헌의 수를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체 인용 문헌의 수가 현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985-1994년에 비해 2000-2004년에는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인용문헌이 주어졌다. 각 주기별 총 인용문헌의 수를 기간내 발행된 총 논문 수로 나누어 보면, 논문별 평균 인용문헌의 수를 알 수가 있는데, 1985-1994년의 경우 23.4개(4713/201)가 인용되었으며, 1995-1999과 2000-2004년의 경우 각각 30.9개(6955/225)와 31.4개(9263/295)가 인용되었다.

표 3
각 주기별 인용문헌의 출판형태

	1985-1994	1995-1999	2000-2004	총계
저널의 논문	1660	3188	4443	9291
책	1998	2102	2411	6511
편집된 책에 실린 논문/장(chapter)	722	949	1461	3132
잡지/신문 기사	16	29	25	70
연구 보고서	57	143	150	350
학회 발표 논문	79	127	174	380
학위 논문	139	364	360	863
인터넷 자료	0	9	150	159
기타*	42	44	89	175
총 인용문헌 수	4713	6955	9263	20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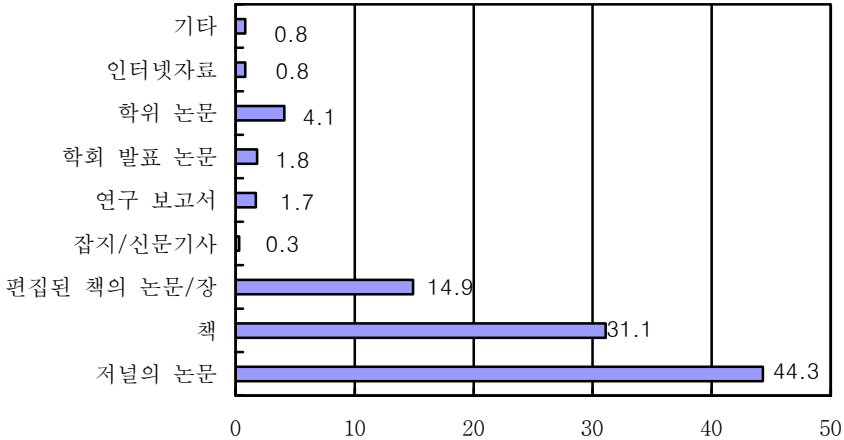
*: unpublished manuscript, brochure, MA research paper, key-note address, handout, term paper, 글의 제목만 언급한 경우, 비디오 테잎, CD-ROM, 글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특정 기관만 언급한 경우(예, English Testing Service) 등 포함

인용 문헌의 출판 형태에 따른 특징을 주기별로 살펴보면, 1985-1994년에는 책을 인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저널의 논문이며 편집된 책에 실린 논문이나 장(chapter)을 인용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1995-1999년과 2000-2004년에는 이와는 매우 차이를 보이는 현상으로 저널의 논문이 책보다 월등이 많이 인용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는 1990년 초반이후 국내의 몇몇 우수 학회지가 매우 활성화 된 것이 한 몫을 하였는데, 논문작성에 있어서 이들을 인용하는 횟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영어교육’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되었다.

그 밖의 주목할 특징으로는 1985-1994년에는 한 번도 인용이 되지 않았던 인터넷 자료가 1997년 겨울 호에 처음 등장한 이래 2000-2004년에는 모두 150여 차례나 인용이 된 점이다. 이는 많은 자료들이 인쇄매체가 아닌 인터넷에서만 제공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더 많이 인용이 되리라고 본다. 한편, 1985-1994년 이후 석·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한 횟수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는데 외국 학자의 학위 논문뿐 아니라 외국에서 공부한 국내학자의 논문이 많이 소개되고 국내 대학원 특히 교육대학원이 활성화 되면서 많은 논문이 배출되기 시작하여 이들을 참고문헌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그런데 2000-2004년 보다 1995-1999년에 학위논문이 더 많이 인용된 것은 51권 4호의 이재희·박약우·한문섭·서수현의 논문에서 170편 이상을 집중적으로 인용한 결과이다.

그림 1은 문헌의 출판형태에 따른 전체 문헌에서의 점유율 보여주고 있는데 저널의 논문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4.3%를 점하고 있으며 책을 인용하는 경우가 31.1%에 달하고 다음으로 편집된 책의 논문이나 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14.9%에 이르렀다. 이들 세 종류가 전체의 90.3%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4.1%를 차지한 학위 논문을 포함한 다른 종류들이 전체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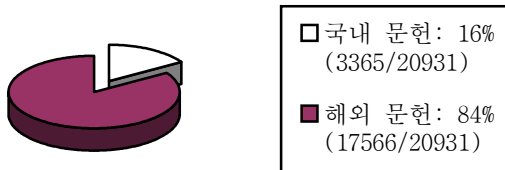
그림 1
인용문헌 출판형태



2. 인용문헌의 발행 장소

20년 동안 인용된 문헌은 총 20931개인데 그림 2에서 보듯이 이중 국내에서 발행된 국문과 영문 문헌이 인용된 경우는 3365건으로 전체 인용문헌 중 16%(논문 1편당 평균 4.6개 인용)인 반면에 외국에서 발행된 문헌이 인용된 경우는 84%(논문 1편당 24.3개 인용)에 이르고 있다. 이는 ‘영어교류’의 논문들이 학문적으로 외국의 문헌에 매우 높이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1985-2004년에 인용된 국내/해외 문헌의 비율



3. 주기별 피인용 상위 저자와 논문 현황

피인용 상위 저자(기관)나 논문을 검색함에 있어서 피인용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 저자의 논문에서 자신의 다른 업적들을 인용하는 경우는 횡수에 포함하지 않고 타 논문에서 해당 저자(논문)가 인용되는 경우만을 산정하

였다.² 한 예로, 특정 저자의 경우 총 22회 인용되었지만 16차례는 자신의 몇몇 논문에서 인용되었다. 이 경우 총 피인용 횟수를 6회로 계산하였다. 1985-1994 사이에 가장 많이 피인용된 상위 15위 내의 저자들을 살펴보면(표 4 참조) 모두 국외의 학자들이며 상대적으로 국내 학자들의 저술활동이 동료 학자들의 연구에 끼친 영향이 미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 기간이 학문으로써 영어교육이 정착해가는 시기이며 관련 분야의 국내 학회지가 몇몇을 제외하고는 아직 발행 초창기이어서 참고를 할 수 있는 문헌이 절대 부족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85-1999년에 Stephen Krashen이 모두 154회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다른 학자들보다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Krashen은 지난 20년간(1985-2004) ‘영어교육’지에서 총 384회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1985-1994년에 피인용 상위 15위 내에 오른 저자 중에서 언어학자들은 Noam Chomsky(9위)와 M.A.K. Halliday(11위) 두 명으로 동 기간내 이 두 학자들의 피인용 비율은 1.7%(79/4713회)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응용언어학자들의 피인용 비율 13.7%(646/4713회)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들 13명 응용언어학자들의 각 논문에서 피인용 횟수는 평균 3.2명(646회/201편)에 이르고 있다.

표 4
1985-1994년도 피인용 횟수 상위 15위 현황

저자	피인용 횟수
1. Krashen, Stephen	154
2. Rivers, Wilga M.	54
3. Oller, John W.	49
4. Widdowson, Henry G.	48
5. Burt, Marina K.	48
6. Dulay, Heidi C.	47
7. Richards, Jack C.	44
8. Goodman, Kenneth S.	42
9. Chomsky, Noam	41
10. Brumfit, Christopher	39
11. Halliday, M.A.K.	38
12. Carrell, Patricia L.	36
13. Corder, S. Pit	30
14. Lado, Robert	29
15. Brown, H. Douglas	26

표 5는 1985-1994년에 가장 많이 인용된 한국인 저자(기관) 상위 15명을 나타

² 피인용횟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저자와 공저자의 역할에 따른 구별을 두지 않았다. 즉, 어떤 저자가 주 저자나 공저자로 참여한 각각의 경우를 동일하게 1회로 계산하였다. 이는 공저자인 경우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참여했는지 인용문헌에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제약에 따른 것이다.

내고 있다. 공동 1위를 차지한 박남식과 문교부(1990년 교육부로 개명)는 각각 22회 인용되었는데,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순위에서는 상위 15위에 다소 못 미치는 공동 19위를 차지하였다. 뒤를 이어 배두본(19회), 박형기(19회), 이계순(17회), 김덕기(16회) 등이 위치하고 있다. 문교부(교육부)는 1995-1999년에는 25회로 2위를 그리고 2000-2004년에는 58회로 1위 등 모두 105회로 한국인 저자(기관)로는 가장 많이 인용이 되었다. 1985-1994년 사이의 문교부(교육부) 관련 자료는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교원 연수에 관한 지침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을 인용한 논문들은 영어교사의 자격/연수 또는 교과서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1993년 45호의 배양서, 차경환·이경민, 김민주, 그리고 김영태의 논문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한국인 상위 15인이 전체 인용문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3.7%(177/4713회)이며, 전체 상위 15인이 차지하는 비율(14.9%, 702/4713회)을 고려할 때 미비하다. 특히, 한국인 상위 15인에 대한 총 177회의 피인용 횟수는 Krashen을 인용한 154회와 큰 차이가 없는데, 이는 한국인 연구자들의 연구 업적에 대한 상대적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 저자들의 피인용 횟수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한 언어만을 사용하는 외국인 저자들과는 달리 두 언어(한글과 영어)가 모두 사용이 되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하였다. 한글 또는 영어로 쓴 문헌이 인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한글로 쓰여진 문헌이 영어로 번역되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한글 이름과 특히 영문 이름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피인용 횟수를 조사하였다. 예를 들어, 김씨 성을 가진 저자의 영어 논문 검색에 있어서는 먼저 Kim으로 검색을 시작하여 이름(given name)을 비교 조사한 후 이름 대신 이니셜을 사용하여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는

표 5
1985-1994년도 피인용 횟수 상위 15위 한국인 현황

저자(기관)	피인용 횟수
1. 박남식	22
1. 문교부(교육부)	22
3. 이계순	17
4. 김덕기	15
5. 이해란	14
6. 배두본	12
6. 박상옥	12
8. 박형기	11
9. 이흥수	9
10. 조명원	8
10. 김중배	8
12. 조석주	7
12. 최용재	7
12. 신성철	7
15. 신용진	6

글의 제목을 통해서 저자를 추적하였다. 실례로, ‘이혜란’의 국문과 영문의 글을 검색하는 경우, ‘이혜란’으로 자료를 검색하여 국문 문헌(예,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교과과정의 비교연구: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의 모색. *영어영문학*, 31(4), 741-752)을 찾아내고, ‘Lee’를 키워드로 하여 이름을 대조하는(때로는 이니셜까지도) 절차를 통하여 영문 문헌(예, Towards an implementation of certain communicative aspects in the English language teaching in Korea, *Language Research*, 16(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영문 문헌의 탐색 과정에서 국문 문헌이 영어로 번역되어(예, The use of error analysis and contrastive analysis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Applied Linguistics*, 9(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한글 제목 “오류분석과 대조분석의 방향과 그 적용”) 인용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표 6
1985-1994년도 피인용 횟수 상위 10위 문헌 현황

저자	발표년도	피인용 횟수
	문헌	
Rivers, W.	1981 <i>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i> .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4
Brown, H. D.	1980/1987 <i>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i> . Englewood Cliff: Prentice Hall.	21
Krashen, S.	1982 <i>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i> . Oxford: Pergamon Press.	20
Widdowson, H. G.	1978 <i>Language Teaching as Communication</i>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
Krashen, S. & Terrell, T.	1983 <i>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i> . Oxford: Pergamon Press.	16
Hymes, D.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B. Pride & J. Holmes, (Eds.), <i>Sociolinguistics</i> .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5
Chomsky, N.	1965 <i>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i> . Cambridge: M.I.T. Press.	14
Wilkins, D.	1976 <i>Notional Syllabuses</i>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3
Dulay, H., Burt M., & Krashen, S.	1982 <i>Language Two</i>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3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i>Applied Linguistics</i> , 1, 1-47.	13

표 6은 1985-1994년에 피인용 횟수 상위 10위를 차지한 문헌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두 외국인 저자의 문헌들로 이루어진 반면 우리 나라 학자의 문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중 Hymes와 Canale & Swain의 글을 제외하고는 모두 책의 인용에 따른 것이다. 상위 10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한 Rivers와 Brown의 저서에

더하여 5개의 인용문헌(Krashen, Widdowson, Krashen & Terrell, Wilkins, 그리고 Canale & Swain)이 언어교육과 관련이 있다.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1981년에 출간된 Rivers의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로 총 24회에 달했다. 다음으로 1980년 출간된(1987년 개정판 포함) Brown의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이 21차례 인용되었다. Krashen의 경우 비록 저자 개인에 대한 피인용 횟수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지만, 피인용 횟수 상위 10위의 문헌에서는 1위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주(공)저자로서 3권의 책을 올려놓음으로써 그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Krashen의 단독 저술이 3위를 차지하고 있고 공동 저자의 일원으로서 두 권의 책이 5위와 공동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위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Krashen의 주요한 저술로 1985년에 펴낸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그리고 1981년에 출간한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이 각각 12회와 11회 인용되었다.

피인용 횟수 상위 한국인 문헌의 경우 빈도수가 매우 낮아 매 주기별로 상위 5위까지만 조사하였는데, 표 7에 주어진 1985-1994년도 피인용 횟수 상위 5위 한국인 문헌 현황에 따르면 그 횟수가 많지 않아 한 두 차례 피인용의 차이에 따라 상위 5위에 포함되거나 해당하지 않을 정도이다. 상위 5위의 순서는 문교부(교육부)의 자료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표 4에 주어진 피인용 상위 한국인 저자의 순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문교부(교육부)의 경우 저자명의 총 피인용 횟수는 22회지만, *중학교 교육과정*이 3회 인용된 것을 포함하여 나머지 자료들은 분산되어 인용됨으로써 순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위 5위에

표 7
1985-1994년도 피인용 횟수 상위 5위 한국인 문헌 현황

저자	발표년도	문헌	피인용 횟수
박남식	1977	<i>Variables in sentential readabil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EFL/ESL for Korean learners. Doctoral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i>	8
김덕기	1988	영어교사 양성의 현실적 문제와 이상적 방향. <i>영어교육</i> , 36, 85-90.	6
이계순	1983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개선방안. <i>영어교육</i> , 26, 1-28.	5
박상옥	1980	훌륭한 외국인 교사의 자질과 교사교육기관의 역할 및 우리나라 중등학교 영어교사교육 교과과정의 분석. <i>영어교육</i> , 20, 15-40.	5
박형기	1989	영어교육이론에 입각한 영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모형 연구. <i>영어교육</i> , 37, 45-72.	4
이혜란	1985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교과과정의 비교연구: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의 모색. <i>영어영문학</i> , 31(4), 741-752.	4
신성철 & 박의재	1987	<i>영어교육학</i> . 서울: 한신문화사	4

포함된 것 중에서 특기할 만 것으로는, 6번 인용되어 2위를 차지한 김덕기의 ‘영어교사 양성의 현실적 문제와 이상적 방향’으로 이는 논문이 아니라 1988년 2월 한국영어교육학회 겨울학술발표회에 있었던 3페이지 길이의 기조발표에 이은 4명 참석자의 토론 내용을 옮겨 놓은 총 5페이지 분량의 짧은 글이다.

표 8
1995-1999년도 피인용 횟수 상위 15위 현황

저자	피인용 횟수
1. Krashen, Stephen	118
2. Oxford, Rebecca	68
3. Gardner, Robert C.	65
4. Long, Michael H.	63
5. Bachman, Lyle F.	57
6. Nunan, David	55
7. Ellis, Rod	52
8. Brown, H. Douglas	49
9. Richards, Jack C.	48
10. Swain, Merrill	43
11. Cohen, Adrew	41
12. Chamot, Anna U.	39
13. Oller, John W.	37
13. O'Malley, J. Michael	37
15. Kasper, Gabrielle	35

1995-1999년에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5명을 살펴보면(표 8 참조), 1985-1994년과는 다르게 언어학자들은 한 명도 포함되어있지 않고 모두 응용언어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인 연구자는 1985-1994년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Krashen은 총 118회로 1985-1994년에 이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1985-1994년에 상위 15위에 포함된 연구자들 중에서 4명(Krashen, Brown, Richards, 그리고 Oller)만이 1995-1999년의 목록에 포함되어 국내 영어교육의 연구 방향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Goodman의 경우 1985-1994년에는 47회를 기록하였으나 1995-1999년에는 17회로 상위 15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읽기 과정(reading process)에 대한 연구가 줄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또한, Corder의 경우 두 기간 사이에 30회에서 절반인 15회로 피인용 횟수가 줄어들어 그의 주 연구 대상인 학습자의 오류(learners' errors)에 대한 연구가 국내 학자들의 관심을 덜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학습자의 학습 전략이 주 연구 분야인 Oxford나 언어 평가의 권위자인 Bachman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점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 시기에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추이는 피인용 빈도수가 많은 문헌 현황을 보여주는 아래의 표 10에서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상위 15명이 1995-1999년에 전체 인용문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6%(807/ 6955)로 1985-1994년의 상위 15명이 차지하는 영향력(15.4%: 725/4713)보다 줄어들어, 이전 10

년 동안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학자들의 문헌을 참고하여 ‘영어교육’의 논문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위 15명의 연구자들에 대한 각 논문에서 피인용 횟수는 평균 3.6명(807회/225편; 동일인 중복 가능)으로 1985-1994년의 평균 3.6명(725회/201편)과 일치하고 있다.

1995-1999년에 가장 많이 인용된 한국인 상위 15명을 보면(표 9 참조) 1985-1994년에 상위 15위에 들었던 저자(기관) 중 8명이 포함되어 있어 그들의 영향력이 지속적임을 알 수 있으며, 나머지 7명이 새로이 상위 15위에 포함되어 점진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주기에서 주목할 것으로, 교육부(문교부)는 1985-1994년도 1위에 이어 1995-1999년에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의 교육정책이나 발행 자료를 참고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 상위 15위의 총 피인용 횟수는 289회로 기간내 전체 인용문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1%(289/6955)로 1985-1994년의 3.7%(177/4713)보다는 다소 증가하였다.

표 9
1995-1999년도 피인용 횟수 상위 15위 한국인 현황

저자(기관)	피인용 횟수
1. 배두분	30
2. 교육부	25
3. 권오량	23
3. 이완기	23
5. 고경석	20
5. 김진철	20
7. 박상옥	19
8. 김덕기	18
9. 이홍수	17
9. 박형기	17
9. 이재희	17
12. 이화자	16
13. 김임득	15
13. 조명원	15
15. 박남식	14

1995-1999년에 피인용 횟수 상위 10위를 차지한 문헌(표 10 참조)을 1985-1994년의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1995-1999년에는 전부 언어교육과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1985-1994년의 상위 10위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언어교육의 세부 영역인, 평가(Bachman)와 학습 전략(Oxford 그리고 O'Malley & Chamot)에 관한 문헌이 새로이 포함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85-1994년에 이어 1995-1999년까지 Krashen이 우리 나라 영어교육 연구활동에 미친 영향력이 지대함을 알 수 있는데, 두 기간에 각각 3권의 단독(공동) 저서가 상위 10위에 포함되어있다. 그 중에서 1985-1994년에는 3번째로 인용횟수가 많았던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 1995-1999년에 1위를 차지하였다. Krashen과 함께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학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쳐온 Brown은 1985-1994년에는 한 문헌을 10위 내에 오르게 하였지만 1995-1999년에는 그의 대표적인 두 저서를 포함시키고 있다. 1995-1999년에 피인용 횟수 상위 10에 든 인용문헌들의 총 피인용 횟수는 188건으로 5년 동안 발행된 전체 논문에서 평균 .64건(188건/295편) 인용되었다.

표 10
1995-1999년도 피인용 횟수 상위 10위 문헌 현황

저자	발표년도	피인용 횟수
	문헌	
	1982	26
Krashen, S.	<i>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i> . Oxford: Pergamon Press.	
	1990	24
Bachman, L. F.	<i>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i>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1987/1990	23
Brown, H. D.	<i>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i> . Englewood Cliff: Prentice Hall.	
	1980	22
Canale, M. & Swain, M.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i>Applied Linguistics</i> , 1, 1-47.	
	1985	20
Krashen, S.	<i>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i> . London: Longman.	
	1990	18
Oxford, R.	<i>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i> . New York: Newbury House.	
	1978	15
Widdowson, H. G.	<i>Language Teaching as Communication</i>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14
Brown, H. D.	<i>Teaching by Principles</i> .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Regents.	
	1985	13
Krashen, S. & Terrell, T.	<i>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i> . Oxford: Pergamon Press.	
	1990	13
O'Malley, J. M. & Chamot, A. U.	<i>Learn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i>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1999년도 피인용 상위 5위 한국인 문헌을 살펴보면(표 11 참조) 1985-1994년과 마찬가지로 그 빈도수가 전체 상위 10내에 든 외국인 문헌에 비해 낮은 편이다. 공동 5위의 두 문헌을 포함한 6개의 문헌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공통점으로는 김임득의 논문을 제외하곤 모두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관한 것이다.³ 이는 제 6차 교육과정에 따라 19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점진적

³ 박상옥의 논문은 비록 제목은 조기 영어교육에 관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내용을 살펴 보면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어있다.

으로 실시한 초등 영어교육에 대한 사전/사후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이완기의 저서 ‘초등영어 교육론’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영어교육’ 학술지의 논문으로 자체 학술지의 인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1
1995-1999년도 피인용 횟수 상위 5위 한국인 문헌 현황

저자	발표년도	피인용 횟수
	문헌	
고경석	1993	7
	국민학교 영어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 <i>영어교육</i> , 46, 165-187.	
박형기, 배두분, 전조영, 정길정	1991	6
	국민학교 영어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 <i>영어교육</i> , 42, 3-56.	
박상옥	1985	6
	효율적인 조기 영어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i>영어교육</i> , 20-30, 321-345.	
김진철	1993	6
	국민학교 영어교사를 위한 특별 연수의 효과. <i>영어교육</i> , 45, 93-114	
김입득	1994	5
	영어과 교육과정과 의사소통 기능. <i>영어교육</i> , 47, 3-25.	
이완기	1994/1996	5
	초등영어 교육론. 서울: 문진당.	

2000-2004년에 피인용 횟수 상위 15위를 차지한 저자들을 살펴보면(표 12 참조) 이전 두 주기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두 외국인 연구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인 연구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Krashen은 15년 동안 지켜온 1위 자리를 근소한 차이로 1995-1999년에 3위를 차지했던 Gardner에게 넘겨 주었다.

표 12
2000-2004년도 피인용 횟수 상위 15위 현황

저자(기관)	피인용 횟수
1. Gardner, R.C.	115
2. Krashen, S.	112
3. Long, M.	83
4. Ellis, R.	81
5. Oxford, R.	72
6. Bachman, L.F.	64
7. Cohen, A.	61
8. Richards, J.C.	58
8. Swain, M.	58
10. Dornyei, Z.	57
11. Carrell, P.L.	50
12. Nunan, D.	48
12. MacIntyre, P.D.	48
14. Brown, H.D.	45
15. Anderson, R.W.	44

이전 주기와 비교하여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1995-1999년의 상위 15위 중에서 1위부터 11위까지의 연구자가 2000-2004년에 순위를 달리하여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1995-2004년까지 10년 동안 우리의 영어교육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4년에 새로이 상위 15위에 오른 연구자는 Dornyei, Carrell, MacIntyre, 그리고 Anderson이다. 2000-2004년에 상위 15위의 총 피인용 횟수는 996회로 동 기간내 전체 인용문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7% (996/9263)로 1985-1994년의 15.4% 그리고 1995-1999년의 11.6%를 고려할 때 논문 작성에 참고하는 연구자군이 점차적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2004년에 발행된 논문에서 상위 15위에 대한 평균 피인용횟수는 3.38명 (996회/295편; 동일인 중복 가능)으로 이전 두 주기의 동일한 평균인 3.6명과 비슷하다.

1985-1994년도 그리고 1995-1999년도의 한국인 상위 15위와 2000-2004년도의 한국인 상위 15위(표 13 참조)를 비교하여 보면, 가장 큰 특징으로 교육부의 영향력은 여전히 반면에 1985-1994의 상위 15위 학자 중 세 명(배두분, 김충배, 김덕기)만 남아 당시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학자들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1995-1999년에 처음 포함된 4명(이완기, 권오량, 이재희, 김임득)에 더하여 새로이 8명이 2000-2004년에 상위 15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12명의 저자군에 대한 2000-2004년 총 인용빈도수는 194회로 1985-1994년에 이어 포함된 세 연구자들의 인용횟수(37회)의 3배에 이르러 신진 학자들의 학문적 기여도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2000-2004년의 한국인 상위 15인의 총 피인용 횟수는 289회로 이는 전체 피인용 상위 15인의

표 13
2000-2004년도 피인용 횟수 상위 15위 한국인 현황

저자(기관)	피인용 횟수
1. 교육부	58
2. 이완기	30
3. 권오량	22
4. 박약우	20
5. 최연희	19
6. 최인철	16
7. 이효웅	15
8. 박기표	14
9. 배두분	13
9. 김충배	13
11. 박매란	12
11. 이재희	12
11. 이정원	12
14. 김덕기	11
14. 김임득	11
14. 조세경	11

996회 보다 현저히 적으며 나아가 전체 상위 1위에서 3위까지의 피인용 횟수 310회 보다도 적은 숫자이다. 한국인 상위 15인의 총 피인용 횟수 289회는 1995-1999년의 횟수와 동일한데, 2000-2004년의 전체인용문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 (289/9263)로 세 주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세 주기에서 한국인 상위 15인과 전체 상위 15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전체 인용문헌에서의 점유율

	1985-1994	1995-1999	2000-2004	총계
전체 상위 15위의 피인용 횟수	725	807	996	2528
전체 상위 15위의 점유율	15.4%	11.6%	10.7%	12%
한국인 상위 15위의 피인용 횟수	177	289	289	755
한국인 상위 15위의 점유율	3.7%	4.1%	3.1%	3.6%
두 집단간의 점유율 차이	11.7%	7.5%	7.6%	8.4%

표 15
2000-2004년도 피인용 횟수 상위 10위 문헌 현황

저자	발표년도		피인용 횟수
	문헌		
Krashen, S.	1985		24
	<i>The Input Hypothesis</i> . London: Longman.		
Brown, H. D.	1987/1994/2000		22
	<i>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i> . Englewood Cliff: Prentice Hall.		
Ellis, R.	1994		22
	<i>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i>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achman, L. F.	1990/1997		20
	<i>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i>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wain, M	1985		19
	Communicative competence: Some roles of comprehensible input and comprehensible output in its development. In S. Gass & C. Madden (Eds.), <i>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i> (pp. 235-253). Rowley: Newbury House.		
Krashen, S.	1982		18
	<i>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i> . Oxford: Pergamon Press.		
Oxford, R.	1990		18
	<i>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i> . New York: Newbury House.		
Brown, H. D.	1994		15
	<i>Teaching by Principles</i> .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Regents.		
Krashen, S.	1981		14
	<i>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i> . Oxford: Pergamon Press.		
Gardner, R.	1985		14
	<i>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i> . London: Edward Arnold.		

2000-2004년도 피인용 횟수 상위 10위의 문헌을 살펴보면(표 15 참조) 그 출판형태가 모두 책(편집된 책의 장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기간에 전체 인용문헌의 수에서는 책(2411권)이나 편집된 책의 논문 혹은 장(1461편) 보다 저널의 논문(4443편)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문헌의 선호도에서는 저널의 논문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 과거 두 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학자의 업적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진다. Krashen의 경우 세 주기 연속으로 그의 저서 3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은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위 10위에 들어 있다 (1985-1994년에 3위, 1995-1999년에 2위 그리고 2000-2004년에 6위). Krashen의 뒤를 이어, 1995-1999년에 상위 10위에 포함된 Brown의 저서 2권이 같은 피인용 횟수(37회)를 기록하며 2000-2004년에도 포함되었다. 한편, Gardner의 경우 개인별 피인용 횟수에서는 Krashen에 앞서 1위를 기록하였지만 개별 문헌의 피인용 횟수에서는 14회를 기록한 한 권의 저서를 10위에 올려놓았다.

2000-2004년도 피인용 횟수 상위 5위의 한국인 문헌들을 살펴보면(표 16 참조) 그 주제가 다변화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연구자의 문헌들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피인용 횟수 전체 상위 10위에 든 문헌의 일부는 지난 주기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포함된 반면에, 한국인 상위 5위의 문헌은 매 주기마다 바뀌고 있어 영어교육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영향력을 끼친 문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문교부 포함)가 발행한 각종 문헌들은 한국인의 문헌 중에서 1985-2004년을 통틀어 가장 많이 인용되었음에도(총 105

표 16
2000-2004년에 피인용 횟수 상위 5위 한국인 문헌 현황

저자	발표년도	피인용 횟수
	문헌	
교육부	1997	10
	<i>외국어과 교육과정 (1)</i> . 서울: 대한교과서(주).	
박약우	1998	8
	초등영어 담당 교사의 자질과 제도. <i>영어교육</i> , 53(2), 107-133.	
Lee, J. W.(이정원) & Schallert, D. L.	1997	6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L2 language proficiency and L2 reading ability to L2 reading performance: A test of threshold hypothesis in an EFL context. <i>TESOL Quarterly</i> , 31(4), 713-719.	
박남식, 조준학, 김충배, 김임득, & 최인철	1998	5
	실용 영어 의사소통능력 인증 제도에 관한 연구. <i>영어교육</i> , 53(2), 179-205	
Kwon, Oryang	2000	5
	Korea's English education policy changes in the 1990s: Innovations to gear the nation for the 21 st century. <i>English Teaching</i> , 55(1), 47-91	
Lee, Hyo Woong & Park, Mae-Ran	2001	5
	A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English program in Korea. <i>English Teaching</i> , 56(1), 53-79.	

회) 불구하고 이전 두 주기에서는 상위 5위에 포함된 개별 문헌이 없었는데 2000-2004년에는 ‘외국어과 교육과정(1)’이 10편의 논문에서 인용되어 1위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빈도수 역시 표 10와 15에 주어진 피인용 횟수 전체 상위 10위의 주요 외국 문헌들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다.

아래에 주어진 표 17과 18은 20년 동안에 피인용 횟수 전체 상위 10위를 차지한 연구자와 한국인 연구자 상위 10위에 대한 인용 현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두 집단간에 빈도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상위 10위에서 1위를 차지한 문교부(교육부)를 제외하면 연구자로서는 배두본이 55회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체 상위에서 10위를 차지한 Nunan에 대한 114회의 절반에 그치는 수치로 두 집단간에 우리 나라 영어교육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 집단이 전체 인용 문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상위 10인이 총 인용문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1%(1704/20931)인 반면에 한국인 상위 10인의 경우 2.3%(490/20931)를 점하고 있다. 한국인 상위 10인의 피인용 횟수 490회는 전체 상위 10위에서 1, 2위를 차지한 Krashen과 Gardner에 대한 피인용 횟수의 합계인 580회 보다 적다. 한편, 20년간 발행된 논문 한 편당 피인용 횟수를 살펴보면, 전체 상위 10인의 경우 한 편당 2.36회(1704/721) 인용되고 있다. 즉 상위 10위에 포함되는 연구자 중 2.36명(동일인 중복 가능)이 각 논문에서 인용이 되고 있다. 한편, 한국인 상위 10위의 경우 0.68회(490/721) 인용되고 있다. Krashen의 경우 20년간 발행된 721편의 논문에서 편당 0.53회, 즉 두 편당 한 편의 비율로 인용되어 우리나라 영어교육 분야의 연구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Krashen과 더불어 3주기 내내 전체 인용 상위 15위에 포함된 결과 20년간의 상위 10위 목록에 오른 연구자는 Richards와 Brown 두 명이다. 20년간의 한국인 상위 10위에서 연구자가 아닌 정부 기관인 교육부(문교부)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 변화와 간행물에 관련된(예, 초등학교에 영어 교육을 도입, 7차 교육과정의 시작, 교육과정 해설 등)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정부 기관을 신빙성 있는 인용 출처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여겨진다. 20

표 17
1985-2004년도 피인용 횟수 상위 10위 현황

저자	피인용 횟수
Krashen, S.	384
Gardner, R. C.	196
Long, M.	170
Ellis, R.	158
Oxford, R.	155
Richards, J. C.	150
Bachman, L. F.	141
Brown, H. D.	120
Carrell, P. L.	116
Nunan, D.	114

표 18
1985-2004년도 피인용 횟수 상위 10위 한국인 현황

저자	피인용 횟수
교육부(문교부)	105
배두본	55
이완기	55
권오량	49
박남식	44
김덕기	44
박상옥	38
최인철	34
김충배	33
이흥수	33

년간의 피인용 상위 한국인 중에서 문교부(교육부)를 제외하면 배두본과 김덕기 두 연구자만이 세 주기 모두에서 피인용 상위 연구자에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연구업적들이 주요한 참고 문헌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II. 결론

1985-2004년까지 ‘영어교육’ 학술지의 논문에서 인용된 문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별 평균 인용문헌의 수는 계속 증가해 왔는데 저널의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이어서 책과 편집된 책의 순서이다. 근래에 들어서는 인터넷자료의 인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는데 접근의 편리성으로 인해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둘째, 외국 문헌에 대한 학문적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용문헌의 84%가 외국에서 발행된 것으로, 우리 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할 때 선행 연구와 이론적 틀을 이들에게서 주로 찾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주기별 피인용 상위 연구자에 따르면, 두 번째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있는데, 외국인 저자들이 한국인 저자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인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저자 중에서도 Krashen은 20년을 통틀어 ‘영어교육’ 학술지에서 384회로 최다 인용되었는데 논문 당 평균 0.53회 인용되었으며, 전체 인용문헌에서 1.8%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주기별 피인용 상위 논문을 살펴보면, 상위 10위를 차지한 외국인 문헌은 거의 대부분이 언어교육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한국인 문헌들의 상당수는 언어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교육부(문교부)가 20년 동안의 전체 피인용 상위 한국인에서 다른 연구자들과 절대적인 편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각 급 도서관의 장서수집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데 전체 인용문헌의 90.3%가 학술지와 서적(편집된 책 포함)에 의존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을 중심으로 장서수집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주기별 피인용 상위를 차지한 문헌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전체 피인용 상위의 문헌 들은 몇 편의 학술지 논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책인 반면에, 피인용 상위 한국인 문헌은 그 반대로 국내 학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연구자의 서적과 주요한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장서 정책의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연구의 결과는 연구자들의 연구업적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연구자 또는 특정 문헌에 대한 피인용 횟수는 연구자들의 연구물이 학계에 얼마나 기여하고 다른 연구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한 척도로서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 빈도수를 중심으로 인용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차후 현재의 자료를 문헌정보학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함으로써 ‘영어교류’ 학술지의 논문에 나타난 연구의 현황과 흐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과거의 어느 시점에 발표된 특정 주제의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그 후의 인용상황을 추적함으로써 그 주제에 관한 문헌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 연구자의 결과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어떻게 응용 발전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동 연구자에게 연구의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문헌이 공통으로 인용되는 논문들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한 논문에서 다른 두 문헌을 인용할 때 인용된 두 문헌이 다른 논문들에서도 얼마나 많이 동시에 인용되는지를 밝혀 두 문헌간의 학문적 밀접도를 알아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단순 빈도수를 이용한 인용 행태 조사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으로는 문헌의 인용 빈도수와 질적 우위성을 동일시 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피인용 상위 한국인의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주제가 주어진 시기에 매우 관심을 끄는 경우 관련 문헌들이 많이 인용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용 빈도수의 의미를 해석할 때 시기별로 주목 받는 주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상준. (1997). BBCI와 JCR CD-ROM을 이용한 한국인 저자의 생화학 문헌 인용 분석. *충남대 문헌정보학논집*, 7, 129-155.
- 박성미. (1988). 한국통계문헌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정보관리학지*, 5(1), 104-128.
- 박준식, 박일중, 신상헌. (1999).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학술정보원의 개발과 교*

육연구활용. 사회과학진흥 특별연구비 과제 연구보고서.

- 유재욱. (1993). 도서관학 학술지에 나타난 인용행태 분석. *정보관리학지*, 10(2), 145-167.
- 이가중. (1996). 인용분석과 과학적 연구업적평가의 이론적 고찰. *과학기술정책 동향*, 6(4), 26-35.
- 이선미. (1997). *한국 심리학분야 학술지의 인용문헌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이춘실. (2002). *KoMCI 2000과 한국의학학술지 인용문헌 분석*. 서울: 대한의학회.
- 이해영. (1994). 한국 전기·전자공학 분야의 인용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1(1), 57-77.
- 정진식. (1994). 사회과학문헌 인용분석 연구-경제학·문헌정보학·행정학 중심. *정보관리학회지*, 11(2), 31-45.
- 최상기. (1996). 한국과 일본의 기계공학분야의 인용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3(2), 121-141.
- 한국영어교육학회. (1985-2004). *영어교육*, 29-59(4).
- Gross, P. L., & Gross, E. M. (1927). College libraries and chemical education. *Science*, 66, 385-389.

교육단계(applicable levels): 모든 단계(all levels)

주제어(key words): 인용문헌(reference), 인용(citation)

김경석

경기대학교 영어영문학부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번지

Tel: (031) 249-9141

Fax: (031) 249-9103

Email: kskim@kyonggi.ac.kr

Received in February, 2006

Reviewed in March, 2006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y, 2006